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Trait and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Mother's and Children's assesment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가야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김 선 희

Dept. of Child Studies, Kaya University
Full Time Instructor : Kim, Sun Hee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sistency between raters(mother report & child self-report) of children's exter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behavior problem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ve traits and child's negative emotionality on consistency between raters. Subjects were 434 children attending grades 4, 5, and 6 in Pusan and their mother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children reported significantly greater on behavior problems than their mothers and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s score on behavior problems was .20 (externalization behavior problems) or .27(internalization behavior problems). Second, mother's depressive traits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consistency between raters of externalization behavior problems. Third, child's negative emotionality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consistency between raters of externalization behavior problems.

- ◆ 주요어: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 어머니의 우울성향,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 일반아동 중 약 10% 정도는 여러 유형의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혜련·홍경자·홍강의·하은혜, 1991). 아동의 행동문제는 공격성 및 과잉행동 등의 외재화 행동문제와 수줍음 행동, 불안행동, 우울행동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로 대별되며(김선희, 2001), 이러한 행동문제는 관찰법, 인터뷰, 평정척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된다. 그 중에서 평정척도는 인터뷰 및 관찰법 등 여타 방법에 비해 자료의 수량화가 용이하며, 아동의 다양한 행동문제들을 비교적 단 시간에 예비판별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효율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평가자는 부모, 교사, 또래, 혹은 아동자신이다. 평가자로서의 부모 특히, 어머니는 아동과 가장 친밀한 존재로서 자녀에 대해 비교적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주평가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교사는 학교상황에서 보이는 여러 행동문제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찰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 동년배의 행동특성에 대한 규준적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또래평가자는 교사에 비해 보다 다양한 상호작용적 상황에 관여함으로써 다수의 행동유형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아동의 자기평가는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자신행동의 의도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Pakaslahti & Keltikangas-Jarvinen, 2000).

이들 평가자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각은 동일한 아동에 대해서 아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평정척도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상황에서 교사 혹은

또래가 아동을 평가할 때 아주 공격적인 것으로 밝혀진 아동이 가정상황에서 부모가 평가할 경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이렇듯 아동의 행동문제를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여러 평가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진행되는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져(홍경자, 1986)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행동문제의 전조로 여겨져왔다. 아동기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와 조기개입은 이후의 발달을 도울수 있으므로 아동기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Hundert & Morrison, 1997; Keogh & Bernheimer, 1998; Pakaslahti & Keltikangas-Jarvinen, 2000; Schaugency & Lahey, 1985; Webster-Stratton, 1988)에 의하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여러 평가자가 제공하는 정보간의 차이 즉 '평가자간 일치도'(consistency between raters)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첫째, 각 평가자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을 공유하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교사와 또래는 학교라는 공유된 상황에서 존재하므로 이들간의 정보는 비교적 일치된다. 유사하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공유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인해 이들간의 정보 또한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Achenbach et al., 1987). 둘째,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이다. Kaplan 등(1999)은 학대받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부모, 교사, 아동 자신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들 평가자간 일치도는 내재화 행동문제일때 보다 외재화 행동문제일 때 더 높게 나타났으며, Achenbach 등(198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 심각성 정도이다. Hundert와 Morrison (1997)은 2½~6세 된 아동의 발달지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들 부모와 교사간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아동의 발달지체 정도가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요약하면,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평가자간 환경의 공유여부,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 및 행동문제의 심각성과 같은 평가자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평가자 내부의 심리적 특성 또한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평정척도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이므로 평가자마다 다양한 요인 즉, 평가자와 아동과의 관계특성, 스트레스 및 우울성향과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McConaughy, 1993).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주로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는데(홍강의·홍경자, 1983; Marchand & Ellen, 1998),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에 있어 어머니 평가가 보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chaughency & Lahey, 1985; Webster - Stratton, 1988).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아온 것이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다. Panaccione와 Wahler(1986)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은 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다는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더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우울 성향의 주특징 중 하나는 인지적 왜곡인데 우울한 성향의 어머니일수록 왜곡된 지각을 가짐으로써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을 과소평가 하거나 과대평가 하게 된다(Dix, 1991; Dix & Reinhold, 1991; Miller, 1995). Breslau, Davis와 Prabucki(1988)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어머니는 정상집단의 어머니보다 자녀의 행동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에 있어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아동이 자신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관련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정서성(emtionality)은 아동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의 하나로서 선행연구(Eisenberg, Fabes, Murphy, Maszk, Smith, & Karborn 1995; Eisenberg & Fabes, 1994)에서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된 변인이다. 정서성은 내향성-외향성과 같이 상황적 일관성 및 시간적 지속성을 갖는 성격특성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긍정성 정서성과 부정성 정

서성의 양극으로 표현된다. 긍정적 정서성은 따뜻한 인간관계, 애착, 사회성, 활동성 및 흥미로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성이란 불안하고 우울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쉽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를 내고 충동적인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30-3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와의 관련성에 대해 거의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인간의 정서와 인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이미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부정적 정서성이 개인의 인지적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의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정척도의 여러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야기될 수 있는 평가자간 일치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주평가자인 어머니의 평가와 아동 자신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 또 이러한 일치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인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34명과 그 어머니로서 총 868명이다. 부산시 5개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개교를

임의 선정한 뒤 4, 5, 6학년 각 학년별로 6학급씩 총 18학급을 임의 표집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머니와 아동으로부터 동시에 얻어서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보고식 설문용 통한 정보수집이 용이하지 않으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경우 부모평가 보다는 자기보고식 설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2가지 방법을 통해 측정된다. 첫 번째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평가와 아동의 평가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것인데, 이는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때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평가 점수와 아동평가 점수간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어머니 평가 점수 - 아동의 평가 점수)으로 측정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N=434 | | | | | |
|--------|------------|------------|-----------|------------|------------|
| 특 성 | 구 분 | 빈도(%) | 특 성 | 구 분 | 빈도(%) |
| 학년 | 4학년 남아 | 64(14.7%) | 어머니의 직업유무 | 유 | 153(35.0%) |
| | 여아 | 72(16.6%) | | 무 | 281(65.0%) |
| | 전체 | 136(31.3%) | 어머니의 교육수준 | 중졸이하 | 87(20.0%) |
| 5학년 남아 | 87(20.0%) | 고졸 | | 238(55.4%) | |
| 여아 | 88(20.3%) | 전문대졸 | | 35(7.7%) | |
| 성별 | 전체 | 175(40.3%) | 대졸,대학원졸 | 74(16.9%) | |
| | 6학년 남아 | 60(13.8%) | 가족 월 평균소득 | 100만원이하 | 102(23.5%) |
| | 여아 | 63(14.6%) | | 101-200만원 | 228(52.5%) |
| 전체 | 123(28.4%) | 201-300만원 | | 64(14.7%) | |
| | | 300만원 이상 | | 40(9.2%) | |

2. 변인측정

1) 아동의 행동문제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보완·수정한 김선희와 김경연(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외재화 행동문제 18문항과 내재화 행동문제 12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행동문제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4점 평가범주에 반응하게 하였다. 행동문제 점수는 행동문제 빈도와 행동문제 강도를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1-1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외재화 행동문제의 Cronbach α 값은 .92이었으며, 내재화 행동문제의 .85이었다.

된다. 이는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산출한 것이다. 첫 번째 방법에 의해 산출된 상관계수는 통계분석법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평가자간의 평가점수 차이를 산출하였다. 또한 절대값으로 산출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어머니 혹은 아동의 평가점수 중 어느 것이 더 높거나 낮음을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대값이 적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우울성향

Derogatis(1983)의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를 한양대 신경정신과에서 한국어판 표준

화 도구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영역의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1-5점 평가범주에 반응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94였다.

4)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김경희(1997)가 제시한 한국아동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서유형 12가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2가지 정서 중 부정적 정서인 놀람, 슬픔, 불안, 혐오스러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 우울, 공포의 10가지 정서를 제시하고 각각의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경험한다'까지 1-4점 평가범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분석결과, 혐오스러움, 수치심, 죄책감 문항은 전체문항과 상관계수가 낮아서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 7가지 정서유형을 제시한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값은 .74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1999년 5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본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해당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용과 아동용이 한 쌍으로 구성된 630부의 질문지를 배부한 뒤 어머니용과 아동용이 함께 회수되지 않은 경우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434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앞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평가점수와 아동자신의 평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평가점수와 아동 평가점수간의 t-test 결과를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평가점수와 아동 평가점수간의 t-test 결과

| N=434 | | | |
|----------|-----------------|----------------|---------|
| 아동의 행동문제 | 어머니 평가 M(SD) | 아동 평가 M(SD) | t값 |
| 외재화 행동문제 | 51.98(31.32) | 56.42(29.32) | 2.38* |
| 내재화 행동문제 | 36.35(19.51) | 40.53(22.14) | 3.41*** |

* p<.05 *** p<.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평가와 아동 평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의 평가점수는 어머니의 평점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평가할 때 보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 행동문제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r = .20(p<.001)$,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r = .27(p<.00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

〈표 3〉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

| N=434 | |
|-------------------|--------|
|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 | |
| 외재화 행동문제 | .20*** |
| 내재화 행동문제 | .27*** |

*** p<.001

평가점수와 어머니 평가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r = .20 \sim .27$ 로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평가와 아동의 평가 결과가 서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성향의 영향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성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평가점수가 아동의 평가점수 보다 높은 집단 즉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문제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우울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평가자들 보다 더 문제시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머니 평가점수와 아동의 평가점수간의 차이가 명백한 집단, 즉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가장 낮은 집단, 예컨대 점수분포가 상위25%이상인 집단(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33점 이상,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20점 이상)을 선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행동문

제에 대한 두 평가자, 즉 어머니와 아동간의 평가가 뚜렷이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선정함으로써 측정오차 및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30%를 설명하는데,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클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낮음($\beta = .54, p < .001$)을 알 수 있다. 반면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평가점수가 어머니의 평가점수 보다 높은 집단 즉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어머니보다 아동자신이 더 문제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아동이 실제보다 자신을 더 문제시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 일치도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가장 낮은 집단 즉, 점수분포가 상위25%이상인 집단(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38점 이상,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25점 이상)에 대해서만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오차 및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아동의

〈표 4〉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성향의 영향

| | | 외재화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N=42) | | 내재화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N=48) | |
|-------------------|-----------|----------------------------|----------------|----------------------------|----------------|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β 계수 | R ² | β 계수 | R ² |
|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 | 어머니의 우울성향 | .54*** | .30*** | .24 | .06 |

*** p<.001

〈표 5〉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 | | 외재화 행동문제(N=64) | | 내재화 행동문제(N=66) | |
|-------------------|-------------|----------------|----------------|----------------|----------------|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β 계수 | R ² | β 계수 | R ² |
|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 |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 .40*** | .16*** | .11 | .01 |

*** p<.001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16%를 설명하는데, 아동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낮음 ($\beta = .40, p < .001$)을 알 수 있다. 반면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시 주로 사용되는 평정척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고, 평가자간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434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와 아동의 자기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 또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평가와 아동 평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수준 보다 아동자신의 평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은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유형의 행동문제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녀 보다 자신의 자녀의 행동문제를 실제보다 덜 심각한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있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일시적이며 상황적 요인에 귀인함으로써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판단할 뿐 아니

라, 오히려 긍정적 요인에 귀인하고자 한다. 또한 대다수의 부모는 평가되는 자녀의 행동특성이 행동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인 경우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머니들은 아동의 행동을 실제보다 덜 문제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둘째, 어머니는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를 소유하지만, 가정 밖 환경에서의 아동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행동특성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관찰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 교사 혹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은 아동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더 문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어머니와 아동자신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상관계수 $r = .20(p < .001)$,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r = .27(p < .001)$ 로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평가자간의 조합 즉, 부모-교사, 부모-또래, 부모-아동자신, 교사-또래, 교사-아동자신, 또래-아동자신 등에 따라 평가자간 일치도는 달라진다. 몇몇 관련연구(Achenbach, et al., 1987; Kaplan, et al., 1999; Pakaslahti & Keltikangas-Jarvinen, 2000)에 의하면 평가자간 일치도가 낮게 보고되는 경우는 아동자신이 포함되는 조합임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Achenbach 등(1987)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11½ ~ 19세 대상의 행동문제 관련 연구 119편에 대해 문헌고찰을 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평가자간일치도가 평균 .60정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교사간은 평균 .28정도이며, 부모, 교사, 및 또래와 아동자신이 짝지어진

조합에서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평균 상관계수 $r = .22$ 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평가와 아동 평가간의 일치도가 상관계수 $r = .20 \sim .27$ 로 나타나 Achenbach 등(1987)의 연구결과와 비교적 일치한다. 평가자간 조합 중 아동자신이 포함되는 조합의 경우 평가자간 일치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 부모, 교사, 그리고 또래 보다 자신의 행동이면에 깔려 있는 의도, 목표, 이유를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현적인 행동만이 관찰가능한 다른 평가자의 평가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둘째, 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클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낮았으며($\beta = .54, p < .001$),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30%를 설명하였다. 반면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riedlander, Weiss와 Traylor(1986)는 행동문제 평가에 있어서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Schaugency와 Lahey(1985)는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어머니 자신의 우울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들의 공통된 시사점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평가에 어머니 자신의 우울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Dix, 1991; Dix & Reinhold, 1991; Miller, 1995)은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인지적 왜곡을 야기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귀인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판단하는데 있어 역치(threshold) 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다(Richters, 1992). 즉, 아동의 특정 행동이 우울 성향이 없는 어머니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우울성향이 어머니에게는 참을 수 없는 문제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우울 성향의 어머니의 평가와 아동자신의 평가간의 차이가 유발되었을 것이다.

셋째, 외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가 낮았으며($\beta = .40, p < .00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16%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정적 정서성은 기질의 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Buss & Plomin, 1984), 기질은 주변사람들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형성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eglasi & Epstein, 1998). 주관적인 경험은 개인의 인지적 과정과 관련되는데, 특히 기질의 한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은 왜곡되고 부적응적인 인지과정을 이끌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행동문제 평가자간의 일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아동의 행동문제 및 적응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행동문제 평정 척도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발달과정상 드러나는 부정적 특성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 평가도구를 통한 진단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여러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평가자간의 지각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는 일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행동문제 평가자간 일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는데 실패하였는데, 이는 내재화 행동문제는 외재화 행동문제와 달리 훨씬 심리적인 특성이 강하고 외현상 잘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아동의 행동문제 평가자를 어머니와 아동자신으로 제한하여 교사 및 또래 평가자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다. 최근 들어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다수의 평가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McConaughy(1993)가 제안한 "Achenbach and McConaughy's model of multiaxial empirically based assessment"이다. 이는 정신병리적 특성에 대한 대표적인 진단도구인 "DSM-IV"와 마찬가지로 5가지 중다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교사, 아동보고, 또래 등 여러 평가자로 부터 얻은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0월 17일

【참 고 문 헌】

김경희(1997). 한국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43-56.

김선희(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한국아동학회지* 22(1), 19-34.

김선희 ·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박성현 · 도현심 · 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이은희(1996).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반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2), 31-42.

이혜련 · 홍경자 · 홍강의 · 하은혜(1991). 문항 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138-149.

홍강의 · 홍경자(1983). 부모설문에 의한 아동의 행동문제 분석: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2(3), 366-374.

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1987). Child/adolescent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Breslau, N., Davis, G., & Prabucki, K.(1988). Depressed mothers as informants in family history research-Are they accurate? *Psychiatry Research* 24, 345-359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and early-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Derogatis, L. R.(1983).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 procedures manual*. Towson, MD: Clinical Psychology Research.

Dix, T.(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Dix, T. & Reinhold, D. P.(1991). Chronic and temporary influences on mothers' attributions for children's disobedience. *Merrill-Palmer Quarterly* 37, 251-271.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rn, M.(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Eisenberg, N., & Fabes, R. A.(1994). Children's enacted interpersonal strategies: Their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negative emotion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2-232.

Friedlander, S., Weiss, D. S., & Traylor, J.(1986). Assessing the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the validity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123-133.

Hundert, J. & Morrison, L.(1997). Parent and teacher assessment of developmental status of children with severe, mild/moderate, or no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pics in Early Childhood*

- Special Education* 17(4), 419-435.
- Kaplan, S. J., Victor, L., David, P., Merrill, W., Suzanne, S., & Francine, M.(1999).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functional impairment, and comparison of informants' report. *Pediatrics* 104(1), 43-50.
- Keogh, B. K. & Bernheimer, L. P.(1998). Concordance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6(1), 33-41.
- Marchand, J. F. & Ellen, H.(1998). The relation of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to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and fathers. *J. of Genetic Psychology* 159, 353-367.
- McConaughy, S. H.(1993). Evaluation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CBCL, TRF, and YSR cross-informant scales. *J.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1), 40-52.
- Miller, S. A.(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Pakaslahti, L. & Keltikangas-Jarvinen, L.(2000). Comparison of peer, teacher and self-assessments on adolescent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Educational Psychology* 20(2), 177-190.
- Panaccione, V. F. & Wahler, R. G.(1986). Child behavior, maternal depression, and social coercion as factors in the quality of child care.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263-278.
- Richters, J. E.(1992). Depressed Mothers as Informants about their children: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for distor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3), 485-499.
- Schaughency, E. A. & Lahey, B. B.(1985).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child behavior, parental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5), 718-723.
- Teglasi, H. & Epstein, S.(1998). Temperament and personality theory: the perspective of 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 *School Psychology Review* 27(4), 534-550.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09-915.